

인도의 이상·현실 잇는 징검돌

‘배낭에 담은 인도’
김호성 지음



시골 사람 들 사이에 다름이 벌어졌다. 한 사람은 서울에 가 본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아니다. 결론은 안 가 본 사람의 승리. 우격다짐 앞에서는 당해낼 자간이 없다는 뜻을 담고 있는 이 우스갯소리는, 인도의 이상과 현실에 대한 이해를 구할 때 도의 의미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우격다짐’ 수준은 아니라 할지라도 인도를 가 보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도의 이상은 ‘현상’에 가깝다.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정신적으로는 풍요한 나라, 거지가 구걸을 해도 비굴해보이지 않는 나라... 인도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환상의 몇몇 조각들이다. 물론 이를 다 환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매력적인 나라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 매력은 물질적 풍요에 역비례하는 정신의 빈곤이 가속화할 수록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인도를 만나야 한다. <배낭에 담은 인도>는 김호성(동국대 인도철학과) 교수가 4차례 걸쳐서 가족과 함께한

4차 걸쳐 다녀온 여행보고서
마치 세밀화 보듯 현장감 생생

런 시각에는 ‘물욕은 최대한 버려졌지만 구걸할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한번이라도 인도를 가 본 사람이라면 느꼈을 것이다. 공황에 내리면서부터 파리처럼 물러드는 거지떼를 맞이할 때의 당혹감. 조금 상황정리가 되면 당연히 머리 속에 파리를 틀게 되는 한 생각. 이 ‘무책임한 평화’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인도 배낭여행 보고서다. 그러나 결코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다. 지나치게 사적인 기록인가 하면 인도철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면 불가능할 전문가적인 안목을 보여 주기도 한다. 하여 이 책은, 인도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 놓인 징검돌이 된다. 여행기를 읽는 즐거움이 미지의 세계에 대한 추체함에 있

출판 담당 =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다면, 이 책만큼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경우도 드물 것이다. 백화점의 진열대 위에 놓인 물건처럼 가지런하게 정리된 정보 따위는 없다. 필자의 박박을 과시하는 듯한 지적인 풍성함도 없다. 그런데 바로 그런 점이 이 책을 빛나게 한다. 대화 교수라는 사람이 가난한 틈 사꾼과 몇십 루피의 돈 때문에 실랑이를 벌인 일까지 솔직히 적음으로써 인도의 현실에 밀착한다. 그 시시콜콜함이 잘 정리된 여행 안내서보다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그런 얘기들 속에 잘 익은 과육 같은 인도의 이상을 펼쳐보이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바랄 수 없는 이 책의 장점은 세밀화를 보는 듯한 현장감이다. 마치 독자가 그곳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게 할 정도의 생생한 기록은 한국과 인도 필자와 독자의 거리를 최대한 좁혀 놓는다. 4번의 여행기를 독립된 장으로 묶었고 각 장마다 간단한 지도로 여정을 밝혔다. 여시아문. 99원.

‘인도, 신과의 만남’ 김홍욱 옮김



신간 <인도, 신과의 만남>은 힌두교를 주제로 인도의 일상에서부터 그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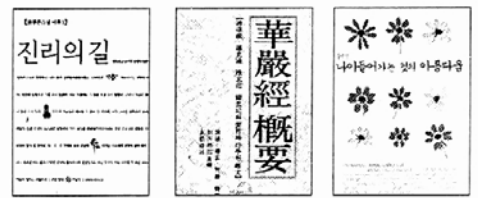
질서 등을 살핀다. 그리고 ‘신과의 만남’에서는 신과 만나는 의식인 푸자의 진행 과정을, ‘성소에서 사원으로’에서는 힌두 사원의 유래와 함께 가르비그라라 불리는 사원의 지성소를 중심으로 한 사원의 구조, 사원의 지역적 특성, 사원의 운영 등을, ‘행렬하는 신상’에서는 성소와 사원의 종교행렬과 축제에 대해 다룬다. 또한 ‘노년과 초탈’에서

인도인의 삶·종교·철학 해설

살과 종교, 그리고 철학의 핵심을 해설하고 있다. 먼저 그 장의 주제에 어울리는 인도의 일상 풍경을 소개한 다음, 그와 관련된 힌두교의 신이나 의례, 개념을 설명한다. 첫 장 ‘힌두교의 개념’에서는 힌두라는 용어에서부터 의례행위인 푸자, 힌두교의 주요 토대인 다르마와 카르마, 카스트라고 알려진 인도 사회

는 힌두 교도의 말년의 삶을 다룬다. 지은이는 30여 년간 인도의 각지에 머물며 인도의 장인 정신, 힌두 전통, 힌두 의식의 기록과 연구를 한 문화인류학자이자 사진가인 아펜젤러 하일라 씨, 155컷의 컬러사진은 인도인들의 삶과 종교 행위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다빈치. 99원.

새로나온 책



▲진리의 길(정화스님어록간행위원회 편저) = 1982년부터 20여 년 동안 정화(성문사 조실) 스님이 설한 법문 가운데 업불과 참선에 관한 요지만을 다듬어낸 다이제스트 법문집. 1편 ‘영원히 굴러가는 금강론’은 정화스님이 제방선원과 강원 그리고 사찰에서 행한 법문이고, 2편 ‘우리 중생이 돌아가야 할 마음의 고향’은 <정토삼부경> 등 책의 서문에서 발췌한 것이다. 그리고 3편은 이남덕(전 이화여대·강육구시인) 씨 그리고 월간 정신세계 기자와 나는 회견이다. 사회문화원. 99원.

▲화엄경 개요(현석 스님 역주) = 청량사와 통현론, 수현기와 탐현기에서 각 품의 요지와 경문을 간추렸다. 청량사는 대만에서 간행된 화엄경소초를, 통현론과 수현기 그리고 탐현기는 신수대장경을 저본으로 했으며, 간추린 경문은 청량사와 통현론 수현기 탐현기에서 인용된 구절을 탄허 스님의 <신화엄경 합론>과 무비스님의 <현토 화엄경>, <한글 화엄경>을 참고했다. 우리 출판사. 99원.

▲나이 들어가는 것의 아름다움(책 캠퍼드·마크 빅터 한세 외 편저, 김문호 옮김) = 집안에서 동네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았다. 스쿠터를 타고 다니는 할머니, 산악 자전거 회원이 된 할머니, 수상스키를 타는 할머니 등 아름다운 노인들의 이야기가 들어 있다. 이들의 이야기는 인생의 어느 시기거나 환희와 감격 그리고 새로운 의미와 시작이 있음을 일깨워주고 있어, 젊은 이나 나이를 이나 모든 이들에게 인생을 통찰 할 수 있는 시야를 열어준다. 씨앗을 뿌리는 사람. 99원.

▲헬렌 니어링, 또 다른 삶의 시작(엘렌 라몬테 지음, 황의방 옮김) = 자연의 소중함을 깨달아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삶을 실천을 통해 보여준 헬렌 니어링. ‘헬렌 니어링의 깊은 영성과 아름다운 노년’이란 부제가 붙은 이 책은, 그의 아름다운 노년과 함께 그녀가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았고 그것을 어떻게 넘어서었는지를 그리고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세계 곳곳에서 어떤 기적 같은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알려 주고 있다. 두레. 99원.

◇금주의 베스트북 10

책방 역사인 집기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회색 고무신	윤 청 광	시 공 사
2	왕 초보 불교박사 피다	일 지 의	민 족 사
3	달라이 라마 행복론	류 시 화	김 영 사
4	성철스님 시봉이야기	원 택	김 영 사
5	불교입문	조계종원본부	조계종출판사
6	마음하나에 펼쳐진 우주	정 화	법 공 양
7	극락은 있다	관 정	빛 다의 마음
8	생할수행이야기	원 황	불 광
9	영가천도와 49재	박 연 진	민 족 사
10	화엄경을 읽는다	가루 카이레	불교시대사

도서 안내: (02)737-0695



세계 4대 성불중 한 분으로 추앙받는 숭산 선사 공안집
은 세상은 한 송이 꽃
무심 편집 | 2012.000원
현암사 전화: 365-5051~6, 팩스: 313-2729

‘부처님을 그리면 부처님이 됩니다’



티베트 불화 색칠하기책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면서 직접 부처님을 그리는 일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부처님 마음으로 가득 채워가는 일이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사경(寫經)과 함께 사불(寫佛)은 중요한 불교 수행법의 하나로 행해져 왔다. 이러한 사불 수행의 전통을 이어 대원사 티베트박물관이 <티베트 불화 그리기> <부처님을 그리면 부처님이 됩니다> <티베트 만다라 색칠공부> 등 세 권의 티베트 불화 색칠공부책

을 펴냈다. 이 책에 담긴 티베트 불화인 탕카와 만다라 그림들은 티베트 불교에 영향을 받은 서양 화가들이 그린 것이다. 대원사 티베트박물관장 현장 스님은 “마음을 그림 그리 는 화가와 같다는 <화엄경>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티베트 불화 그리기를 통해 티베트 불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지혜를 키우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도서 출판 연지문. 99원. 각권 5천원. 문의 (061)852-3038

‘우리는 지금 어디쯤...’ 지안스님 지음



“모든 것이 옮겨가는 도정(道程)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보면, 인생은 분명 순례의 길이다. 오늘은 여기서 묵고 내일은 또 어디론가 떠나야 하는 여수(旅愁)의 고단함을 달래면

수행생활중 느낀 수상집

서 덧없는 세월 속을 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가>는 양산 통도사 반야암 암주사로 있으면서, 영천 은해사 승가대학원장직을 맡고 있는 지안스님이 펴낸 첫 수상집이다. 수행생활을 하며 느끼고 배운 것들을 정리한 이 수상집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제

1장 ‘중노릇 잘해라’에서는 30여년전 “금생에 태어나지 않은 셈치고 중노릇 잘해라”라고 당부하시던 은사인 백안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무원(無願)의 생활을 다짐하고 있다. 제2장 ‘생활 속에서 깨달음을’과 제3장 ‘속세를 바라보니’에서는 산사와 도심을 오가며 만났던 사람들과의 관계속에서, 또 생활속에서 맞닥뜨렸던 갖가지 문제들을 통해 개인적으로 느꼈던 점들을 솔직담백하게 털어 놓

‘그곳엔 부처도...’ 대우스님 지음



깨달음으로 가는 외길 <그곳엔 부처도 갈 수 없다>는 수행의 길에서 참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설계된 책이다. 대중들을 위해 경론과 공안

양자역학-唯心 대비 설명

에 담긴 참 뜻을 다양한 각도에서 구체적인 언어로 설명함으로써 화엄 일승법의 요체인 ‘마음뿐인 도리’를 밝혀내고, 선종의 공안에 갖고 있는 ‘직지인심(直指人心)’의 지취(指趣)를 드러내고 있다. 화엄의 일승과 선종의 공안을 함께 아우름으로써, 교학을 쫓다가 개념과 사고의 장애에 빠지거나 참선만을 쫓다가 공허한 무기

선(無記) 및 이승의 은갈 경계에 떨어지지 않도록 세세히 법을 설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은 현대 양자역학이 도달한 물질관의 함의를 자세히 밝히면서, 이를 ‘아무런 공력(功力)을 들이지 않고 잠잠히 부처 땅을 밟는’ 불교 중심(唯心)의 도리와 대비시켜 과학적 사고로 단련된 현대인들이 유심의 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다. 지은이 대우스님은 20년전 현정선원(www.fuoyee.or.kr)을 개설하고, 일승법(一乘法)을

며며 불교 포교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다. 스님은 이 책에서 ‘모든 수에 0을 곱하면 왜 0이 되는가?’, ‘가로 세로 높이는 있는데 위치만 있다?’ 등 일상사 가운데서 화두를 잡아, 그것을 풀어나가면서 부지 불식간에 독자도 하여금 ‘진리 탐구’의 놀라운 기쁨에 빠져들도록 이끈다. 현암사. 99원.

도가(道家)의 비전(秘典) ‘태을금화종지(太乙金華宗旨)’에 대한 강의

오쇼는 ‘황금꽃의 비밀’을 아주 고대(古代)의 것으로 묘사한다. “이 책 ‘황금꽃의 비밀’은 세상에서 가장 비의적인 전문 서적이다. 이것은 그대에게 육체 이상이 되는 길을 보여 줄 것이다. 이 경전은 그대에게 죽음을 넘어가는 길을 보여 줄 것이다.”

신간

황금꽃의 비밀

The Secret of the Golden Flower
The Secret of Secrets

상 하 출간!!!

‘황금꽃의 비밀’은 도가(道家)의 오랜 비전(秘典)인 ‘태을금화종지(太乙金華宗旨)’에 대해 인도의 깨달음은 스승 오쇼가 강의한 것으로, ‘황금꽃(金華)’으로 상징되는 빛의 수련법과 그 원리와 효과, 수련 과정에서의 주의사항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오쇼 | 신국판 | 각 권

인도는 세상에 커다란 선물들을 주어 왔다. 아티샤(Atisha)는 그 커다란 선물들 중의 하나이다. 인도가 보디다르마(Bodhidharma)를 중국에 준 것과 마찬가지로, 인도는 아티샤를 티베트에 주었다. 아티샤에 대해 명상하라, 그의 충고에 귀 기울여라. 그것은 굉장한 가치가 있다. 그것은 하나의 철학이 아니다... 그것은 내적인 변형의 지침서이다. 그것은, 그대가 지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책이다. 나는 그것을 ‘지혜의 서(The Book of Wisdom)’라고 부른다.

오쇼

지혜의 서

신간

OSHO

The Book of Wisdom

아티샤 (Atisha)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곱 가지 핵심 방법’에 대한 강의

오쇼 | 신국판 | 각 권 14,000원